

종합·해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지하철 상무역 앞에서 김선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등 비민주당 야 4당 지도부가 17일 광주 서구 중앙동 롯데마트 월드점 앞에서 서대석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구청장 재선은 野 대권 후보 각축장?

손학규·유시민 광주 방문 지원 유세... 무소속 강력 비난

10·2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지도부가 대거 광주를 방문, 지원유세를 벌이는 등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를 놓고 한판 대결을 벌였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등이 직접 나서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유세장은 야당 대권 후보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후보들은 중앙정치외교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 시민의 뜨거운 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제 광주에서 최초의 여성 구청장을 만들어 대한민국 역사를 또 하나 써줘야 한다"며 김

선옥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손 대표는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취임 이후 첫 선거인데다가 당의 텃밭인 광주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1박2일 동안 광주에서 머무르면서 서구청장 선거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선옥 후보와 비민주당 야 4당 단일후보로 선출된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 무소속 김종식 후보 간 3과전의 양상 속에 예전처럼 민주당의 압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손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여러분이 김선옥을 구청장으로 만들어주면 민주당에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관계자들도 지난 16일과 17일 잇달아 광주를 방문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서대석 후보는 창조적 마인드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깨끗하고 능력 있고 정직한 인물"이라며 "변화된 서구, 희망과 행복이 살아 숨 쉬는 서구를 만들고 야 4당 시민사회 단일후보인 서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7일 광주를 방문, 풍암호수·월드컵 경기장·염주동 일대에서 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민주당 못지않게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참여당 후보를 구청장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경남이 김두관을 뽑아 준 만큼 이젠 호남이 화답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에 비해 경험이 적고 정책도 약하지만, 광주시민들이 광주의 만아들(민주당)이 아닌 다른 아들에

게도 사랑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김종식 서구청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이 대거 광주를 방문, 자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지역실립꾼을 뽑는 이번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유감"이라며 "기초단체장 선거에 중앙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불평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박근자 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청장은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 행정을 맡는 선거인데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중앙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 사실상 이번 선거의 전면에 등장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패거리 정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재탕·삼탕 질의... 새 이슈가 없다

국감 중간결산, 피감기관은 모르쇠 일관 여전

올해 국정감사가 야당의 전두력 약화 등으로 정국을 뒤흔들만한 이슈를 생산하지 못하고 중반으로 향하고 있다.

우선 이번 국정감사는 재탕, 삼탕식의 중복 질의가 거듭되면서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각 의원실에서는 매일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쏟아냈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보다 예년 자료를

'업데이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감 현장에서의 중복 질의 행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피감기관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라는 영문새 답변이 이어졌다.

여기에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폭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평가이지만 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한 미확인 의혹 제기도 여전히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신 건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비자금을 권력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감기관들의 '모르쇠' 답변도 여전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서서 라운한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는 민주당 유재창 의원의 폭로에 진동수 위

원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으나 다음날 금감원 국감에서 뒤늦게 사실로 확인된 일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4대강 사업, 천안함 사태, 민간인 사찰 파문 등 국감 이전부터 제기됐던 쟁점 외에 정국을 뒤흔들만한 메가톤급 이슈가 생산되지 못한 채 전반적으로 밋밋하고 맥빠진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태 문제는 여야 간 감정 섞인 쟁점의 소재로 활용되며 실제적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도 핵심 증인의 무대기 불참 등으로 야당이 제기한 여러 실세 배후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孫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 중단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4대 강 반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손 대표는 17일 "4대 강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위장된 운하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유가농단지를 방문, "4대 강 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낙동강 운하사업으로, 구색을 맞추려고 4대 강 사업으로 슬쩍 바꿔 여기저기 강도를 파헤치며 급수강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취임식 축사를 통해 "얼마 전,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진정한 강 살리기 운동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이 예기할 수 없는 오해를 낳은 바 있다"며 "민주당은 4대 강, 특히 거대한 보와 준설은 절대 반대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실상 대운하 사업, 위장된 대운하 사업인 4대 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대규모 보 건설, 대규모 준설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국도를 파괴하는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막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같은 날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영산강 발원 '구설수'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이 영산강에 관심이 많은 만큼 원문적인 말을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4대 강 사업 전면중단을 요구하면서 대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그 대안을 내놓은 대안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기도 골프장 인허가 싸고 공방 대권 신경전

손학규-김문수 '갈라진 우정'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골프장 공방'을 주고받으며 차기 대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골프장이 너무 늘었다'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가 "손 대표가 지사 시절 인허가를 했고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도장만 찍었다"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 측은 당장 반발했다. 박 지원 원내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손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 골프장 인허가는 9개에 불과했고, 김문수 지사가 허가한 것은 38개"라며 "어떻게 이런 거짓말, 허위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김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측은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이후 승인된 골프장 38개

중 66%에 해당하는 25개는 모두 김 지사 취임 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손 대표 본인은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측근들에게 불쾌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조대현 부대변인은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니라 승인권자"라며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 답변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경기도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처럼 단순한 사실 공방이 도덕성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슷한 이력을 가진 잠재적 대선 경쟁자 간 고도의 기싸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운동권 선우

배로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차례로 경기지사를 맡는 등 공통점이 많다. 때문에 두 사람의 지지층이 겹쳐 한 사람의 지지율이 오르면 다른 사람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는 손 대표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김 지사는 하락하고 있다.

이들의 신경전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두 사람이 과거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 손 대표의 한 측근은 17일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아주 가깝고 끈끈한 사이였고, 2006년 김 지사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지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30%대 지지율 회복하나

친이계 오찬·홍피 활동 활발... 여론조사 상승세

정체 및 하락 현상을 보이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곡선을 다시 그리면서 다시 안정적인 30%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세종시 수렴에 대한 당내 계파대립이 격화됐던 지난 3월 30%를 뚫고 내려간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속속 30% 안팎의 수치로 회복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밝힌 10월 첫째 주 정예 여론조사에서는 30.0%를 기록, 5개월여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미디어리서치가 7~8일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감으

로 누가 가장 적당할까'라는 질문에서 박 전 대표가 29.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동서리서치의 5일 성인 1000명 대상 전화조사에서는 31.5%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은 지난 8월2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이후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과의 연쇄 오찬, 미니홍피와 트위터 등 활발한 온라인 활동 등이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해사정사

大 개강 11월6일(土)

- 보 험 계 약 법(土)- PM 2~8시
- 자동차보험이론(日)- PM 2~8시

〈2개월 완성〉

최고 수준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집니다.

새롬행정고시학원

북구청 앞 영진빌딩 5층 ☎ 268-8111~2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가격 30,000원 (택배비 무료)

발목펌프운동봉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약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될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음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없으면 반품하세요.

운동방법 500회, 1,000회를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아침 저녁 2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1.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30cm 이상 위로 올렸다 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반갈아작, 우 교대로 한다.
3. 이삼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상담 전화 062-672-2002 / H.P. 010-7510-2000
광주 남구 진월동 258-1 2층 제일건강(국민은행 건너편 단컨도너스 2층)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시 영 성

장성읍 소재, 임대 공장 푸른산 테크빌

푸른산 테크빌

즉시 입주 및 생산가능 가능 | 경제적인 분양가/임대료

■ 분양 / 임대:

- 170㎡ (57평형) 창업, R&D용
- 330㎡ (100평대)
- 660㎡ (200평대)
- 1,000㎡ (300평대)
- 1,300㎡ (400평대) 다수 준비됨.

■ 수도권 이전 기업:

- 분양가의 50%까지 무상 지원 프로그램(지식경제부)

■ 임대 입주기업:

- 파격적인 임대료 수준

문의/연락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
Tel : 061-393-7855/7(현장 사무실) www.bluemountvil.com